

DDA, 2007년 9월 농업협상 동향

주 현 정*

WTO 회원국은 지난 7월 17일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발표한 개정된 세부원칙(Modalities)의 초안에 대하여, 자국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노력으로 9월부터 집중적인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회의가 발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의문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장접근에 관한 2주간의 집중적인 회의 결과, 7월17일의 크로포드 펠코너의 의장문서를 지지해 줄만한 발전의 징후가 크게 보이지는 않았다. 펠코너 의장은 이번 첫 회의에서는 농업협상의 3대 핵심 분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부문에 대한 이슈를 논의할 것이고 다음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장문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수치와 관련된 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펠코너 의장은 다양한 규모와 국가로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회의 결과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중순경 모델리티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 회의 평가

9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 대해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hj1013@krei.re.kr 02-3299-4262

사무총장은 각국의 의견차는 좁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시드니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라미총재는 농업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관세감축에 대한 논의는 2주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농업보조금과 산업재에 대한 시장접근 등의 어려운 이슈가 11월까지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DDA협상에 주요한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회의에서 그는 협상이 지난 6월에는 교착 상태에 있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의견차가 많이 좁혀졌으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

이번 첫 회의에서는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시장 접근에 대한 논의는 팰코너 의장의 주도하에 3주간 집중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다. 7월 17일에 의장이 발표한 문서에 초점을 맞춘 회의는 DDA협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임을 보여 준다.

팰코너는 협상에서 논쟁이 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회원국들과 다양한 규모와 국가들로 회의를 가져왔다. 그는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의장문서를 개정할 것이라 희망하였다.

9월 3일에 회의가 재개되면서 팰코너는 36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표단 그룹으로 구성된 'Room E'¹⁾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우선적으

1)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로 선진국의 시장접근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그 후 개도국의 시장접근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특히 관세감축방식(tariff reduction formula), 민감 품목(sensitive products), 수입 쿼터 증량(tariff , 쿼터 내 관세, 특별긴급관세(SSG), 관세단순화, 수입 쿼터관리가 주요 논제였다.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이슈의 합의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형성되었다. 8개국으로 구성된 이들 핵심 그룹(core group of 8)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인도, 일본, 미국이 포함된다.

팔코너는 회원국들과의 회의 결과가 자신의 의장문서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2.1. 민감 품목

의장의 문서는 회원국들이 민감 품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암시한다. 민감 품목에 대해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확대된 수입물량에 대한 대가로 관세 감축의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농업 분야를 많이 보호하는 EU와 G-10이 쿼터확대를 최소화하고 관세 삭감을 낮추기 위해 보호하는 반면, 미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쿠바(G-33,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G-20), 인도네시아((G-33,G-20,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SVE,ACP), 일본(G-10), 케냐(G-33,아프리카,ACP), 한국(G-33,G-10),레소토(LDC,아프리카,ACP), 모리셔스(G-33,ACP,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G-20,G-33), 파나마(G-33,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G-20,열대작물), 필리핀(G-33,G-20,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LDC,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G-20), 미국, 베네수엘라(G-33,열대작물,G-20).

국과 케언스 그룹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농업 협상국들은 민감 품목의 지정을 세번을 분류하는데 쓰는 HS-code 8자리 이상으로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 케언스 그룹은 기존에 민감 품목을 현행 수입 쿼터 수준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HS-code 4 또는 6자리 이상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감 품목의 지정을 HS-code 8자리 이상으로 하는 것은 수입국에게 특정품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게 만든 것이라고 수출국들은 말하였다.

협상국들은 민감 품목이라고 지명될만한 관세부과가 가능한 세번(dutiable tariff)의 비중에 대한 합의에 접근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그들이 지목한 HS-code의 수준은 국가의 수출에 대한 이익과 수입에 관한 불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

회원국은 또한 수입 쿼터 관리(tariff quota administration)에 대한 이슈도 조사하였다. 케언스 그룹은 더욱 심하게 무역을 보호하는 그들의 무역 파트너를 비판해왔다. 수출국들은 수입할당을 채우는데 실패한 나라들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쿼터 경영에 대한 더 많은 규율을 요구했다.

2.2. 특별품목

9월 11과 12일은 민감 품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Room E'회의가 소집되었다. 특별품목에 대해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 개발 지표에 근거해 관세감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국들은 향후 개도국이 거센 수입 파고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펠코너는 G-33에 의해 제시된 품목지표의 리스트에 대해 회원국들이 어떻

게 특별품목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개도국의 이러한 그룹은 특별품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남기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미래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G-33에 의해 제안된 품목지표 중 하나는 농업생산의 총가치 또는 가사농업소득(household agricultural income)에서의 생산물 비율이다. G-33회원국은 특별함을 주기 위해 생산물은 적어도 한 개의 품목지표 하에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팰코너는 수출국들이 제시한 각각의 품목지표가 개도국들을 동시에 적용시키고 합의에 이르게 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하였다. 그의 제안에서 대표단들의 G-33의 품목지표에 관한 논의는 9월 12일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개도국들이 특별 품목에 대하여 ‘스스로 지명’할 수 있는데 동의하였다. 한편, G-33은 품목지표선정을 위한 어떠한 요구도 명백하여야하고, 객관적이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관해서 G-33은 전부터 FAO의 자료에 관해 의문을 품어왔으며 국별 데이터가 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2.3. 협상 진전 상황

제네바에서의 농업협상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이는 이 회의에 대해 “매우 강렬하고 매우 집중된 회의”라고 하며, 만일 빠른 발전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추진력을 곧 실패를 감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다른 이는 회의가 예상보다 늦게 흘러가고 있으며 반드시 주요한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2.4. 다음 단계

팰코너는 이번 주에 개도국의 시장접근과 관련한 다른 이슈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협상단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쿼터 자유화 시장 접근, 소규모취약국가(SVEs, small and vulnerable economics), 신규가입국(RAM, recently-acceded members)에 대한 특별대우를 포함한다.

그는 국내보조에 대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며 그 후 수출경쟁의 이슈도 풀어나갈 것이다. 많은 정부들은 미국이 무역을 왜곡하는 농가 지불액의 상한을 낮추지 않는다면 도하협상에서의 어떠한 돌파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팰코너는 9월 14일에 전 회원국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짰다. 여기서 그는 소그룹회의 결과들을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협상국들은 현재 진행되는 회의는 합쳐서 3주 이상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 후 회원국들에게 2주의 휴식을 주는 동안 팰코너 의장은 10월 중순에 발표될 세부원칙의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다.

3. 향후 일정

- ‘Room E’ 농업 협상: 2007, 9월 17-21일
- 비공식 농업 특별 세션: 2007, 9월 21일
- 농업위원회: 2007, 9월 26-27일, 11월 21-22일
- 2007 WTO Public Forum: 2007, 10월 4-5일
- 일반이사회(Geneal Council): 2007, 10월 9-10일, 12월 19-20일
- 농업과 비농업 부문 세부원칙 개정문서: 2007, 10월 중순

4. 협상 경과²⁾

2001년 11월 UR 협상 이후 시장 개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하였다.

DDA는 총 9개의 협상의제를 포함하고 농업과 서비스는 2000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기설정의제이며 나머지 7개 의제는 비농산물 접근(NAMA), 규범,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개발,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등이다. 주요 의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중 핵심의제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분야이며 농업협상의 중단 원인도 이들 세 개 분야, 특히 농업과 NAMA에서의 주요국간 대립이 근본 원인이다. WTO의 중요한 기구로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Geneal Council)이며 DD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협상위원회(TNC)가 설치되어 있어 DDA의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³⁾

표 1 DDA의 주요 의제

구분		의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물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타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비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2) 농림부 동향 자료 참조.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2002년 3월부터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각 의제별로 대립이 커 진전이 없고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 의견 차와 의사결정 방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렬되었다.

2004년 7월 말까지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 골격을 채택하였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농업 부문에 대해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에 합의함으로써 구체적이진 않으나 협상진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6년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적 중단을 선언하였다.

2006년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여 2007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DDA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업협상그룹의 펠코너(Falconer) 의장은 협상의 빠른 진전을 위해 2007년 4월과 5월 두 차례 의장문서를 제시하였다.

2007년 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하려 했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었다.

G-4국의 합의 도출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펠코너 의장은 2007년 7월 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9월에 여러 차례의 집중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 결과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펠코너 의

장은 세부원칙 초안을 개정하고, 향후 농업 부문 협상 타결이 내년 초까지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부 “DDA 협상경과”

서진교외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Geneva Watch Vol.7. no. 31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181